



글로벌 통신 혁신 허브:
영국이 확실한 R&D
목적지인 이유

소개

전 세계적으로 통신 부문의 혁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문명의 근간을 이루는 통신은 오늘날 경제 및 사회적 과제를 해결하려는 세계의 노력을 지원합니다.

여기에는 넷제로를 향한 움직임에서 한정된 자원으로 경제 생산성 높이기, 노령화 사회 지원, 디지털화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 계층 감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과제가 포함됩니다. 이러한 문제는 현장에서 서로 달라 보일 수 있지만 세상을 하나로 단합해 줍니다. 그리고 그 변화를 위한 촉매제는 바로 연결성입니다.

그러나 통신 부문은 지금 번곡점에 도달해 있습니다. 기술 발전의 속도가 대중에게 혜택을 제공하는 역량을 앞지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지상(non-terrestrial) 네트워크의 가격 및 가용성 개선, 개방형 네트워크의 발전, 6G 시대를 향한 경주는 모두 새로운 기회와 새로운 시장 주자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거시경제 상황과 기술 인력 부족 및 통신 산업 파편화는 배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빠른 발전은 종종 개발 국가 수준으로 격리된 사일로로 국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간 공동 사고와 협업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통신은 글로벌 산업입니다. 통신 산업이 번창하고 성공하려면 업계 주자들이 새로운 성장을 촉진하고, 새 고객을 유치하고, 이해관계자, 주주 및 사회 전체에 가치를 제공하는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합니다. 우리는 통신 산업의 잠재력을 실현해야 하며, 이것은 곧 협력이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국제 협업을 통해 통신 업계는 전 세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하고 혁신을 통한 혜택을 공유할 수 있습니다.

영국은 이 과제를 지원하기에 이상적인 입지를 갖추고 있습니다. **산업, 학계 및 창업** 분야에서 강점을 지닌 영국은 통신 부문의 혁신을 추진하고자 하는 외국 파트너들에게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국경을 초월한 협업을 통해 각 나라는 업계의 당면 과제를 해결할 전문 지식, 기술력 및 리소스에 액세스하고 통신 업계와 영국 모두에 상호 이익을 선사하는 새로운 성장 기회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영국은 이러한 파트너십을 수용하기 위한 개방적 자세와 준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백서는 R&D 목적지로서의 영국의 매력과 지역 투자 제안 등 글로벌 통신기업을 위한 영국의 이점과 미래 기회를 설명합니다.

백서는 영국이 어떻게 영국 텔레콤 이노베이션 네트워크(UKTIN)를 통해 국제 통신 혁신을 위한 새로운 모델을 지원는지 살펴봅니다.

또한, 시장별로 같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국가적 배경, 투자 기회 및 영국이 파트너로 이상적인 이유를 알아보는 상세한 국가 분석을 제공합니다.

영국이 통신 부문의 완벽한 국제 혁신 파트너인 이유

글로벌 통신 혁신 파트너: 영국이 완전한 R&D 목적지인 이유



이 섹션에서는 영국을 외국 자본의 매력적인 투자처로 만드는 이유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합니다.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배출한 영국의 풍부한 역사

무선 통신은 영국의 DNA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1897년 5월 브리스톨 해협을 건너 4마일 거리에 이르는 최초의 무선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때 전송된 메시지는 “준비되었습니까?(Are you ready?)”이었습니다. 이 기술적 업적의 중심에는 이탈리아 발명가 굴리엘모 마르코니(Guglielmo Marconi)가 있었습니다. 모국에서 자금을 신청했지만 응답을 받지 못한 발명가는 영국에서 무선전신신호회사(The Wireless Telegraph & Signal Company)를 설립했습니다.

영국 남서부에서 이 수상 전송을 마친 지 단 4년만에 영국에서 캐나다의 세인트존스로 최초의 대서양 횡단 무선 통신이 이루어졌습니다.

오늘날 마르코니의 스토리는 많은 점을 시사합니다. 그는 비전을 가진 창업가로서 자신의 아이디어를 현실로 만들기 위해 영국으로 왔으며, 그 과정에 새로운 기술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협업 정신은 여전히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좀 더 가까운 과거를 보자면 영국 연구자들과 다른 국가의 협력을 통해 1990년대의 현대 인터넷이 탄생했습니다.

오늘날 영국에는 AI, 사이버보안, 소프트웨어, 가상화, 시스템 통합, 테스트, 우주 및 위성 통신, 광통신 및 반도체 분야의 강력한 역량을 갖추고 전문 분야에 집중하는 여러 개의 지역 클러스터가 구축되어 있습니다.

국제 협업에 적합한 위치

세계은행의 기업하기 좋은 국가 지수에서 8위를 기록한 영국은 세계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기에 가장 좋은 국가 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또한, PWC 글로벌 CEO 설문조사에서 영국은 가장 선호하는 투자처 순위에서 4위를 차지했습니다.

글로벌 시간대에 위치하면서 유럽 대륙에서 매우 가까운 거리에 있는 영국은 협업을 위한 글로벌 허브로 매력적인 위치입니다.

영국에는 이미 휴대폰, BT, Arm 등 통신 업계의 몇몇 대형 주자들의 글로벌 본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또한, 영국은 혁신 기지로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에릭슨(Ericsson)은 10년 투자 계획의 일환으로 영국에 6G 연구실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영국 정부도 최근 호주, 캐나다, 일본, 미국과 힘을 합쳐 글로벌통신연합(GCOT)을 출범하는 등 통신 정책 문제에 대해 국제적인 리더십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새로운 비공식 연합은 연구개발, 정보 공유 및 해외 아웃리치와 같은 영역에서 긴밀한 글로벌 조율을 위한 기회를 모색할 예정입니다. 글로벌통신연합은 이러한 이니셔티브를 통해 업계 성장 기회 촉진, 정책 입안자와 산학 간의 대화 지원과 같은 몇 가지 공동 목표의 진전을 도모합니다.

또한, 영국은 호라이즌 유럽(Horizon Europe) 프로그램에 재가입하며 영국 과학자들에게 세계 최대의 연구 협업 프로그램에 대한 액세스를 제공했습니다.

세계 최고 인재와 학문의 본거지

영국에는 세계적 수준의 대학 90개가 있으며, 글로벌 10대 대학 중 네 곳인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및 UCL이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뿐만 아니라 영국 학술 연구 수준은 2007년 이래로 매년 G7을 비롯한 모든 비교 대상 국가 중 최고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영국 학계의 수준과 인재는 새로운 기술의 연구개발을 추구하는 해외 통신 파트너들에게 매력적인 옵션을 제시합니다.

통신 부문의 혁신을 추진하는 성공적인 산학 협동의 사례도 많습니다. 예를 들어, 요크 대학은 다학제 연구 센터인 고고도 플랫폼 응용 센터(Centre for High Altitude Platform Applications)를 운영하면서 업계 주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비저상 네트워킹을 위한 새로운 무선 통신 기술을 연구합니다.

또한, 서리 대학(University of Surrey)과 킹스칼리지 런던(King's College London), 브리스톨 대학(University of Bristol)은 **5GUK 테스트 네트워크**에 참여하면서 2018년 초 영국 최초의 포괄적인 5G 네트워크의 일부를 형성한 바 있습니다.

통신 산업에 대한 정부의 탄탄한 지원

영국 정부는 통신 산업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과 투자를 꾸준히 제공해 왔습니다.

그 예로 영국 정부는 2025년까지 영국의 85% 지역에 기가비트 광대역을 제공하고 **2030년까지 인구의 99% 이상**에게 기가비트 광대역을 제공한다는 목표로 50억 파운드를 투자했습니다.

2022년, 영국은 대부분의 국민에게 5G를 제공함으로써 계획보다 5년 빠르게 주요 이정표를 달성했습니다.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기존 4G 네트워크를 활용한 비독립형 5G를 배포하여 네트워크 용량을 높였기 때문이었습니다.

2억 파운드 규모의 5G 테스트베드 및 평가 운영 프로그램(5GTT)은 전국의 다양한 프로젝트에 기금을 투자했습니다. 여기에는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5G mmWave 메시 네트워크를 만들어 새로운 의료 응용 분야 테스트를 위한 저렴한 프라이빗 네트워크를 제공한 **리버풀 5G 프로젝트**가 포함됩니다.

이 프로그램은 **대상 분야**(농업, 유틸리티, 자동차, 운송 및 물류 포함)에서 5G 채택을 가속화하는 5G 사용 사례 140건을 탐색했습니다. **5GTT의 중간 평가**에 따르면 이 프로그램은 업계 투자 가속화를 도와 2억 6280만 파운드의 민간 및 공공 투자를 추가 유치했습니다. 프로그램은 정부 투자 1파운드당 1.65파운드의 추가 자금 확보를 달성했습니다.

또한, 2023년 4월 발표된 **UK 무선 인프라 전략**은 2030년까지 독립형 5G의 전국 커버리지를 제공하고 인구의 95%까지 커버리지를 확대한다는 목표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1억 1천만 파운드 투자를 통해 **6G 연구** 가속화를 지원한다는 약속도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는 6G 기술 개발을 위해 2800만 파운드의 자금을 지원받은 영국 3개 대학(요크 대학, 브리스톨 대학, 서리 대학)도 포함됩니다. 네트워크 장비 테스트를 위한 웨스트 미들랜드의 **새로운 영국 통신 연구소** 설립을 위한 8천만 파운드의 펀딩도 조성되었습니다. 이 연구 시설은 통신 운영업체, 공급업체 및 학계가 힘을 합쳐 네트워크의 보안, 탄력성 및 성능을 강화하는 새롭고 혁신적인 방법을 테스트하게 됩니다.

혁신을 더욱 촉진하기 위해 **미래 통신 챌린지**는 6G를 비롯한 통신 기술의 발전을 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대회는 과학혁신기술부(DSI)에서 이노베이트 UK(Innovate UK)를 통해 자금을 지원하는 소기업연구이니셔티브(SBRI) 중 하나입니다.

영국 정부는 미래를 내다보며 영국을 ‘과학기술 초강대국’으로 만든다는 야심을 가지고 상당한 규모의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2023년 한해에만 다음과 같은 투자가 결정되었습니다:

- 10개의 **5G 혁신 지역** 구축을 위해 3,600만 파운드의 자금이 배정되었습니다.
- AI, 슈퍼컴퓨팅 및 양자컴퓨팅 연구를 위한 **35억 파운드의 펀딩**이 발표되었습니다.
- 영국우주국(UK Space Agency)은 위성 통신 분야의 **새로운 혁신 프로젝트에 5천만 파운드를 지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 영국의 국가 혁신 기구인 이노베이트 UK는 AI를 통해 농업, 건설, 운송 및 크리에이티브 산업을 비롯한 고성장 가능 분야의 **생산성과 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1억 파운드 규모의 펀드**를 설정했습니다.

핵심 사항

영국의 지리적 위치, 통신 유산 및 정부의 통신 부문 투자 규모는 영국을 투자와 혁신의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어줍니다.

UKTIN에서 지원하는 새로운 국제 협업 모델

영국 텔레콤 이노베이션 네트워크(UKTIN) 는 영국 통신 업계를 위한 혁신 네트워크로 업계와 이해관계자, 학계를 하나로 모아 R&D 투자, 협력 및 상업화를 촉진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해외 통신 파트너들을 영국 안의 기술력과 전문 지식으로 안내하는 관문 역할을 합니다.

산업 불편화를 극복하여 공급업체가 원활한 혁신과 성장의 가도를
달릴 수 있도록 설계된 다양한 서비스가 통신 업계의 자문을 거쳐
개발되었습니다.

UKTIN은 전체 통신 생태계의 전문 지식을 한 자리에 모아 영국 전역의
학술 연구 및 기술 역량에 대한 포괄적인 지도를 최초로 제공합니다.
이는 영국과 국제 수준 모두에서 기술력과 수요를 매칭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이 모두를 결합하면 글로벌 수준에서 통신 혁신을 지원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식별할 수 있으며, UKTIN은 이를 통해 조직을 신형 기술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갖춘 기관이나 개인에게 연결해 줄 수 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해외 기업이 영국 진입을 위한 경로를 쉽게 찾도록
돕는 전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UKTIN 국제 자문 지원 서비스
\(International Advisory Support Service\)](#)에는 규정 준수 및 표준
요구 사항에 대한 지침, 테스트베드에 대한 액세스 지원, 관련 조직, 대학
및 개인 연결 등이 포함됩니다.

핵심 사항

UKTIN에 참여하는 모든 이들의 집합적
경험은 글로벌 기업이 혁신을 가속화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국가별 투자 기회 탐색

이 섹션에서는 세 곳의 해외 시장에 제안하는 혁신과 협업의 기회를 살펴봅니다.

각 시장은 강점과 약점이 있으며, 기회와 도전 과제도 있습니다. 이러한 시장의 성격은 경제, 문화 및 정책적 요소를 기반으로 형성되며, 지역 수준의 혁신 속도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러한 맥락을 바탕으로 영국의 혁신 지원 방식을 소개하고 국내 투자를 위한 기회를 살펴보겠습니다. 영국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혜택을 얻을 수 있는 주요 시장인 미국, 일본, 한국을 살펴보겠습니다.

다음은 이미 체결된 정부 계약과 협업입니다.

글로벌 통신 혁신 연구: 영국이 혁신 R&D 투자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미국

대서양 선언은 중요 기술 및 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작업 계획을 개발하고 제공합니다. 미국은 글로벌통신연합(GCOT) 회원국입니다.



일본

오픈랜(Open RAN) 및 6G에 대한 R&D 협업을 비롯한 글로벌 통신 공급망 문제에 대한 협력 계약. 일본은 글로벌통신연합(GCOT) 회원국입니다.



한국

보다 혁신적이고 안전한 네트워크 배포 시 전략 효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협업 프로젝트에 대한 공동 펀딩.

이제 각 국가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배경

2023년 6월 조 바이든 대통령과 리시 수낙 총리가 서명한 대서양 선언은 꾸준히 이어온 미·영 경제 파트너십을 한 단계 더 발전시킨 선언입니다. 이 계약은 AI, 양자 기술과 같은 주요 신흥 기술에 대한 공동 업무 계획을 포함하며, 무엇보다도 미국 통신 기업들이 영국과의 협업을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길을 열어 줍니다. 미국과 영국은 글로벌통신연합(GCOT)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투자 기회

유사한 시장 성장도와 성공적인 협력의 역사를 공유하는 미국과 영국은 통신 산업을 위한 공통의 목표를 오랫동안 공유해 왔습니다. 최근의 이 계약은 6G와 같은 이니셔티브를 비롯하여 통신의 미래에 대한 통합된 비전을 가진 파트너십을 강화해 줍니다. 이에 더불어 이 계약은 미래 협업 기회와 관련된 광범위한 토론을 위한 명확한 프레임워크를 설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 가장 가치 있는 혜택은 영국의 번성하는 학술 연구 환경에 대한 액세스일 것입니다. 영국의 연구 환경은 세계를 선도하는 초기 R&D 이니셔티브로 가득하며, 투자에 적합한 성숙도를 자랑합니다. 구체적으로 영·미 협업의 미래는 다음을 포함합니다.

- 미국과 영국의 연구자들이 함께 협력하고 공통의 목표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공동 펀딩 대회 및 프로젝트를 포함하는 보다 긴밀한 R&D 파트너십
- 대서양 양쪽의 두 나라가 공개적으로 펀딩을 제공하는 테스트링 시설 등 기존 미·영 이니셔티브의 통합
- 현재 및 미래 글로벌 통신 표준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한 협력 작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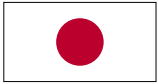
목적지로서의 영국의 강점

이러한 기회의 제공 측면에서 영국은 미국 기업들이 진출할 수 있는 활기차고 역동적인 통신 시장을 제공합니다. 영국은 미국 통신 기업들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활발한 시장과 성장하는 투자 기회를 제공합니다.

- 두 시장은 공통의 언어, 시장 성숙도 및 고객 과제에 기반을 둔 자연적인 시너지를 가지고 있어 이상적인 통신 동반자가 될 수 있습니다.
- 영국은 이미 광범위한 R&D 역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는 영국이 심도 있는 전문 지식을 갖춘 통신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영국의 학술 연구 우수성은 R&D에 적극적인 기업에게 영국을 이상적인 목적지로 만들어 줍니다.

핵심 사항

통신의 미래를 위한 공통의 목표를 공유하고 대서양 선언의 파트너십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 통신 기업들이 세계를 선도하는 영국 학계와 연결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합니다.



일본

배경

NEC, 후지쯔, 라쿠텐과 같은 일본 최대의 통신 기업들이 오래 전부터 영국에 진출해 있습니다. 일부는 영구에서 40년 가까이 운영해 왔으며, 2022년에는 후지쯔가 인지 및 첨단기술 센터 설립의 첫 단계로 2,200백만 파운드의 초기 투자를 발표하면서 영국을 자사 글로벌 혁신 네트워크의 주요 지역으로 확고히 다졌습니다.

이러한 기업들의 성공적인 운영은 일본과 영국 간의 기본 협업의 강점을 잘 보여주지만, 영국이 통신 역량과 생태계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면서 그 기회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회는 2023년 7월 영국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 경제 동반자 협정(CPTPP) 가입에 대한 일본의 적극적 지지를 통해 확인한 바와 같이 강력한 정치 및 경제 연합을 기반으로 하며 이러한 연합을 통해 가능해 집니다. 일본은 CPTPP에서 정식으로 영국의 가입 절차를 주도했으며 영국의 가입 완료를 '큰 성공'이라고 부각시켰습니다. 일본과 영국은 글로벌통신연합(GCOT) 회원국이기도 합니다.

투자 기회

영국에 진출했거나 처음 진출하려는 일본 기업에게 영국은 장기적이고 미래를 보장하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영국은 통신 혁신에 대한 비전이 확실할 뿐 아니라 재정적 지원과 사업 다각화에 대한 방향을 제시합니다. 이러한 지원에는 오픈랜에 대한 상당한 투자가 포함되어 있어 기업이 기존 배포와 다른 독특한 상업적 고려 사항을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줍니다.

예를 들어, 도시바는 최근 상용 양자 보안 통신 기술 개발을 위해 케임브리지에 2천만 파운드를 투자한 양자 기술 센터를 설립했습니다.

시장 규모가 다른 나라들만큼 크지는 않지만 영국은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멋진 '쇼윈도'를 제공합니다. 영국에 진출한 일본 소유 기업들은 영국에서 개발 결과를 공개하는 것이 다른 나라에 더 쉽게 기술을 홍보하고 추가 투자를 유치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습니다.

목적지로서의 영국의 강점

- 전폭적인 정부 지원과 지속적인 투자는 궁극적으로 통신 업계가 효율성과 상업적 수익을 촉진하는 혁신의 속도를 높여줄 것입니다.
- 이 모든 요소는 영국을 더욱 탄탄하고 매력적인 목적지로 만들어 주고 있습니다. 앞으로 5~10년 동안 일본 통신 기업들의 영국 진출을 통한 혜택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핵심 사항

영국은 일본 기업, 특히 영국과 이미 연관이 있는 기업들에게 장기적이고 미래를 보장하는 투자 옵션입니다. 영국은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선보일 수 있는 '쇼윈도'를 제공합니다.



한국

배경

한국과 영국은 통신 부문에서 이미 많은 수확을 거둔 협업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예로 5G 오픈랜 시스템의 출력 효율 개선을 위한 두 나라 간의 오픈랜 R&D 협업 프로젝트인 **Flexi-DAS**가 있습니다.

다양한 기술 중점 분야 중 하나로 이 프로젝트는 현장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유연한 무선 칩셋 및 무선 주파수 식별 카드를 기반으로 하는 고도로 유연한 분산안테나시스템(DAS) 무선 헤드/유닛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기회

Flexi-DAS 프로젝트는 영국과 한국의 협력을 대표하는 사례로 글로벌 통신 시장이 직면한 주요 과제를 공략하기 위한 협업적 R&D의 잠재력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과 보다폰의 긴밀한 파트너십은 두 기업 간의 이러한 협업 정신을 보여주는 또 다른 사례입니다. 양사는 웨일즈와 잉글랜드 남서부의 2,500개 모바일 사이트에 오픈랜을 배포하는 작업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5G 혁신의 선두에 서 있으나 협업을 요하는 분야 중 하나는 5G 및 6G와 우주 위성 기술의 융합으로, 이는 영국이 선도하고 있는 부문입니다.

2022년 영국우주국은 5G 통신 부문의 기술, 제품 서비스 개발을 도모하는 영국 기업들을 대상으로 유럽우주국(European Space Agency)의 “5G 및 6G를 위한 우주(Space for 5G and 6G)” 프로그램 신청을 공모했습니다. 이 이니셔티브는 위성 기술을 통신 네트워크에 통합하여 5G의 출시, 도달 범위 및 임팩트를 가속화하기 위해 출범되었습니다.

영국이 비지상 네트워킹 발전의 가속화에 대한 의지를 천명한 상황에서 이러한 이니셔티브는 확실한 투자 기회를 선사합니다.

5G와 6G의 차세대 혁신을 활용하고 운영 또는 R&D 투자를 확대하려는 한국 기업들에게 영국은 매력적이고 우호적인 시장을 될 것입니다.

목적지로서의 영국의 강점

영국과 한국은 6G와 같은 신흥 기술에 대한 공통의 관심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미래 6G 기술 개발을 위한 민간 협력의 강화를 목표로 하는 케이-네트워크 2030 전략을 최근 발표했습니다. 한편, 영국 정부는 6G 전략이 포함된 새로운 미래 통신 사업에 **최대 1억 파운드를 투자**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영국은 AI에도 대대적으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KT는 지난 5년 동안 AI 서비스 R&D에 54억 달러를 투자했으며, 2025년까지 7억 7300만 달러 이상의 연간 AI 기반 서비스 매출을 달성한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영국에서는 이노베이트 UK가 AI 및 ML 도입을 통해서 영국 경제의 성장과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해 1억 파운드를 투자하는 **BridgeAI**를 발표했습니다.

영국은 상업성 있는 혁신에 집중하면서 기술 역량의 현실적 응용에 특히 강한 면모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상용 모델의 시험, 배포 및 개발을 위한 강력한 기반을 제공합니다. 또한, 영국은 창의성을 장려하는 문화가 자리잡고 있으며, 이러한 문화는 혁신에 대한 접근 방식에서 빛을 발합니다. 한국 기업들은 파트너십을 통해 이러한 역량을 심분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핵심 사항

정부 차원의 협력 사례는 6G 및 비지상 기술의 배포와 같은 미래 기회에 대한 잠재력을 잘 보여줍니다. 새로운 제품과

기회를 현실로 바꿀 수 있는 UKTIN

영국은 영국의 통신 생태계를 활용하여 운영 및 협업을 추진하려는 해외 기업을 적극 환영하는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이 백서에서는 다양한 시장에 제시되는 영국의 투자 기회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기회를 현실로 바꾸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국 통신 생태계로 들어가는 관문 역할을 하는 UKTIN은 사람과 프로그램, 프로젝트를 관련 기술력과 전문 지식에 연결해 주는 통로입니다. 이러한 방대한 인적 네트워크가 파격적인 아이디어를 통해 새로운 컨셉과 혁신을 주도합니다.

UKTIN은 영국 통신 생태계를 하나의 전문 혁신 네트워크로 모아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우수한 지원과 자문을 해외 통신 기업들에게 제공합니다.

영국은 이미 방대한 R&D 역량으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역량은 영국이 탄탄한 전문성을 보유한 통신 부문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특히 영국의 학술 연구 우수성은 R&D에 적극적인 기업에게 영국을 이상적인 목적지로 만들어 줄 뿐만 아니라 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우수한 엔지니어링 인재 파이프라인을 완벽하게 제공합니다.

해외 기업은 영국 시장의 세밀한 부분을 이해해야 하며, 영국 통신 생태계가 갖춘 역량을 활용하는 방법을 알아야 합니다. UKTIN은 중립적인 단일 환경을 통해 여러 관계자 간의 연결을 구축하고 맞춤형 지원과 자문을 제공합니다. 이 네트워크는 영국 진출을 위한 문을 개방하여 해외 기업들이 시장 진출에 따르는 어려움을 극복하도록 도움을 줍니다.

R&D 투자나 협업을 원하는 기업은 새로운 아이디어와 컨셉을 발굴하고, 혁신을 가속화하는 방법을 찾고, 필수 기술력을 확보하고, 펀딩 기회를 얻고, 적합한 리소스를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UKTIN은 혁신을 가속화할 올바른 사람을 연결하여 해외 기업이 영국의 통신 산업에 존재하는 기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릴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을 보려면 웹사이트 uktin.net을 방문하세요.

